



광주U대회 성공 개최 '파이팅' 유정심 시장과 김형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2015 광주국제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들이 16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3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제5차 위원총회를 연 뒤, 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김 전 총리는 광주U대회 공동위원장에 선임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학교급식 무더기 부정입찰... 먹을거리 안전 '구멍'

유정심 시의원 "광주 부정당업체 141곳 적발"

97곳은 제재 안받고 252억 어치 식재료 공급

부당한 방법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입찰에서 낙찰된 부정당업체가 적발 이후에도 버젓이 학교에 식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16일 광주시의회 제22회 1차 정례회 결산 심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광주지역 학교급식 공급업체 141개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무더기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적발된 186개 업체 중 76%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은 한 업체가 다른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며 입찰에 참여했거나, 종업원이 아예 없거나 1명 뿐인 페이퍼컴퍼니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부정당업체 141곳 중 97곳은 적발 이후에도 제재를 받지 않고 버젓이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정당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11

월까지 3개월간 공급한 식재료는 2572건, 252억7000만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심 위원장은 "부정당 업체로 적발되면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재계약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학생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방관한 뒷집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면 제재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적발 업체가 너무 많아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또 학교급식에서 수의계약

이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학교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식재료를 구매한 규모가 최근 3년간 무려 506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가 2010년 7월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마련, 학교 식재료 구매시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인 견적과 전자견적을 통해 계약하라고 했지만, 광주지역 학교에서는 무려 3247건이나 이를 어겼다. 금액으로는 506억8000만원에 달했다.

유 위원장은 "학교 식재료 구매에 관한 교육부 지침이 있는데도 교육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교육부의 기준조차 외면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3만9000원

5년 연속 증가... 전남은 줄어

광주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으로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0만9000원이던 사교육비는 5년새 14.4%인 3만원이 올랐다. 반면, 전남은 16만8000원으로 전년(17만2000원)보다 소폭 줄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3

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비는 서울이 32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25만9000원)·경기(25만3000원)·대구(24만2000원)가 광주보다 많았다. 이어 부산(22만9000원)·울산(22만4000원)·인천·경남(20만8000원)·제주(19만6000원)·강원(17만2000원) 순이었다.

광주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20만9000원에서 2010년 21만3000원, 2011년 21만6000원, 2012년 23만1000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는 초·중·고교생 모두 늘었다. 초등학교생은 25만2000원에서 25만9000원으로, 중학생은 27만3000원에서 28만4000원으로, 고등학생은 15만8000원에서 17만3000원으로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광주지역 사교육비 총 규모는 6565억원으로 전년도(6590억원)와 비슷했다.

전남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16만8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년(17만2000원)보다 2000원 줄어 들었다.

전남은 2009년 16만3000원, 2010년 16만8000원, 2011년 16만7000원, 2012년 17

■ 광주·전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단위: 원)



만2000원으로 16만~17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사교육비 증가와 학생들의 입시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재능과 특기 중심으로 대입제도를 다양화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6, 해질 18:37, 달출몰 00:00, 달몰림 14:10

낮에도 덥지 않아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흐림	19/24	보성	흐림	17/24
목포	흐림	19/24	순천	흐림	20/26
여수	흐림	21/24	영광	흐림	18/23
나주	흐림	18/24	진도	흐림	18/25
완도	흐림	19/25	전주	흐림	18/24
구례	흐림	17/25	군산	흐림	17/24
강진	흐림	18/25	남원	흐림	17/24
해남	흐림	18/25	축산도	흐림	19/22
장성	흐림	16/23			



◇ 바다 날씨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0.5~1.0	북서	0.5~1.0
남해	남서	0.5~1.5	북서	0.5~1.5
남부	남서	0.5~1.0	북서	0.5~1.0
서부	남서	0.5~2.0	북서	0.5~2.0

◇ 생활지수

식중독	58
운동	40
빨래	60

◇ 들때

목포	미물		썰물	
	07:50	13:22	01:14	07:22
여수	09:08		02:33	
	23:17		16:18	

◇ 주간 날씨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	☁	☁	☁	☁	☁	☁
17/25	17/26	16/27	17/27	16/28	16/28	18/27

군부대 구타·가혹행위 재발방지 '군인권팀' 운영

인권위, 4개 부대 직권조사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하는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해 '군인권팀'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시간, 28사단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등 최근 군에서 잇따라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군인권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꾸려진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군인권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꾸려진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군인권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꾸려진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또 군 수사과정 및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실태조사 사업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군 인권침해 진정은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관련 진정 사건은 1292건으로, 2001년 58건에서 2007년에는 80건으로 늘더니 2013년에는 141건을 기록했다.

특히 GOP 총기 난사사건 이후 진정이 급증, 올해 접수된 82건 중 사건 발생 일인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여간 접수된 진정은 30건(36.5%)이었다. /연합뉴스

호남기후서비스 융합 워크숍

오늘 오후 3시 DJ센터 개최

기후환경 변화와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농·산업 발전과 경쟁력 지원을 위한 '호남 기후서비스 융합 워크숍'이 17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감대중권벤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남발전연구원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은 '지역 기후변화와 농어촌 그리고 기후 서비스'

라는 테마에 맞춰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정보 서비스와 재난예보 시스템 등을 호남지역 농어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주제 발표는 ▲호남 기후변화 전망과 대응 ▲호남 기후서비스 융합 워크숍이 17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감대중권벤처센터에서 열린다. 주제 발표 뒤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호남 농어민 지원 방향'을 모색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주남대학교

추천 회원	
남	여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28~47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9~4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7~48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9~39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4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39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8~4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혼

남	여
의사, 변호사 32~65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공무원, 교사 32~58세
대기업 간부 36~59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안주 이리함) (063) 275-7766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경품 행사

기간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경품추첨일 2015년 정기총회(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공고)

선물 1 기념품(택1)
카드명세서, 핸드폰 충전기

선물 2 계약시 즉석복권 증정(100%당첨)
문정지갑, 세라믹 냄비, 굿스락 일체형기프트

선물 3 계약시 경품 응모권 증정

- 1등 | 황금열쇠 순금 1냥(1명)
- 2등 | 가전제품 100만원 상품권(2명)
- 3등 |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3명) [동반 1인 포함]
- 4등 | 온누리상품권 5만원(4명)
- 5등 | 온누리상품권 3만원(100명)

* 중복 당첨시 상위 품목으로 증정, 제세공과금 본인부담

가전제품 상품권 1,000,000원
* 상품은 이미지와 다를수 있습니다.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대인동 한미쇼핑 1층)
충장지점 223-7217, 223-7218(충장로5가 입구)